

IV. 교화의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의견

문 상 선(대구보화당, 수위단회 전문위원)

1. 대전제	35
2. 소전제	35
3. 소전제에 대한 설명	36
4. 대안	39

교화의 마이너스 성장의 원인을 분석 할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제로 분석하고 제기해야 한다.

1. 대전제

현 교화의 마이너스 성장은 지난 10년간 교육 교화 자선의 총체적 교단 경영의 결과이다.

2. 소전제

1) 현 교화의 상황은 전무출신 개개인 자신이 대종사님의 본의를 실행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공동 책임이다.

2) 역대의 주요 정책 방향과 그 시행에 있어서 어떠한 성역도 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즉 출가 재가 범위 사정과 사업성적 산출의 문제로 요약되는 전 대의 정책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주저해서는 안된다.

3) 현재 교단의 교당 신축을 비롯한 모든 토목 사업을 일으키는 것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전향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4) 현재 교단의 대 사회적인 참여와 활동 범위와 그 수준에 대하여 냉철하게 반성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5) 교단 인사 정책의 비 효율성이 교단 정신의 노쇠화를 초래했다고 보고 이를 극복해야 한다.

3. 소전제에 대한 설명

교화 침체의 제 일차적인 문제는 교무의 질에서 찾아야 한다. 교무의 질이 일반 교도와 한국인에게 매력적이고 긍정적으로 다가가지 못한 점이 그 일차적이다.

그리고 역대 정책 중 범위 사정과 사업 성적의 산출에 있어서 교무들과 교도들의 내면적인 동조와 승복에 실패하여 교무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교단에서 끝없이 이루어진 토목 사업은 교무와 교도의 기력을 소모시켜 결국 그 에너지가 교화로 집중되지 못하였으며 대 사회적인 활동도 우리의 교화에 대한 집중에 어느 정도 빗나가게 하고 있다.

그래서 원불교의 교화는 밖으로 향하는 모든 역량을 비축해서 보다 더 보수적이고 교단 적이며 내면적 사업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물이 넘쳐흘러서 그 흐르는 물이 저절로 자연을 기르듯이 우리 교화의 힘이 고양되어서 대 사회적인 사업

이나 교단 내 토목 사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1) 교화의 침체의 원인을 교무 개개인의 성직자와 교화자의 질에서 찾아야 한다.

교무의 질 향상을 위해 시간과 자본을 투자해야 한다. 우리는 낡고 비좁은 환경에서도 기쁘게 공부하고 신앙할 수 있다. 가능한 모든 활용 가능한 경제를 동원하여 교무의 질 향상에 투자해야 한다.

*. 교화에 성공한 교무와 보통 교무들을 각각 표본으로 약 50여명을 선택하여 그 의식구조와 성격과 생활 태도, 가치관 등 교무의 질에 대한 모든 면을 분석해야 한다.

*. 교화 성공과 실패한 교당에서 교도들을 직접 심도 있는 면담 조사로 교무의 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분석해야 한다.

*. 교화단 활동과 교무 훈련등 모든 교무들의 활동에서 교무 상호간에 교화에 장애가 되는 교무들이 범하기 쉬운 그러나 교화에 큰 장애를 주는 면을 늘 대화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실질적인 대화가 되도록 하고 출가교화단보 등 출판물을 통하여 상호간에 충고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해야 한다.

*. 개인 교화의 어떤 특수하게 성공한 케이스를 가지고 보편적인 양 인식하는 태도를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한다. 보편적으로 성공한 교화만이 우라의 교화지 이제 한 두사람 특수한 케이스의 교화의 성공은 더 이상 공식 석상이나 공식 지면에서 크게 거론 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우리 의사실인식을 방해하고 있다.

2) 원불교 정신의 핵심인 법위사정과 사업성적 산출 방법을 수정해야 한다. 가능하면 소급해서라도 이를 수정해야 한다.

*. 원불교 교단 창립이후 가장 중요하고 의미 깊은 행정은 법위사정에 관한 것이다. 이 법위등급은 교단 행정의 최고의 근거가 되고 원불교 존립의 정신적 기본이다라고 할 수 있다. 정신의 기본에 관한 주요한 사정이 이미 냉소적으로 흘러 교무와 교도로 부터 더 이상 존중받고 그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교화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 그리고 사업성적이 재가 법위 사정의 가장 큰 근거가 되는 지침도 마땅이 수정되어야 한다. 물질 회사가 법위 사정의 한 근거되는 것은 교도들로 부터 심복 받지 못하므로 교화에 상치 된다고 본다.

*. 기타 기존 제도와 관행을 엄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이 분석은 어떤 권위도 배제하고 오직 그 제도와 관행이 장기적 교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해야 한다.

3) 중앙에서 펼친 각종 토목 사업과 교구와 단위 교당에서 이루어진 교당 신축 등의 건축 공사가 교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 교단의 시설물과 대지 등은 10년전과 비교해서 많은 증가되었으나 교도는 오히려 감소 했다면 이 토목 공사가 교화에 역 기능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 토목 공사는 항상 교화 수준에서 조금 뒤서가도록 해야 한다.

*. 토목 공사에 쏟는 역량을 교화에 집중해여 한다.

4) 교단 외적인 활동에 과도한 역량 소모는 교화에 미이너스로 영향을 미치므로 자제 해야 한다.

*. 전시적인 사회 활동은 교화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원불교의 인식의 확대는

분명 교회에 플러스 작용할 것인데 교회 성장이 마이너스 나타남은 결국 외적인 변화 보다는 내적 성숙(교무의 질)이 부족 함을 입증하고 있다.

5) 교회 발전을 위해서는 연륜과 예우차원에서의 인사는 지양하고 오직 교회에 능력이 있는 교무를 큰 교당에 우선적으로 발령을 내야 한다. 인사 순환제는 교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본다. 능력이 있으면 연륜이 적어도 일찍 큰 교당의 교무가 되게하여 일찍부터 능력을 인정하여 교단의 풍토를 새롭게 해야 한다. 교단의 인사 정책은 예우와 연고 등 비능률적인 면을 지양하고 오직 능력본位로 해야 한다.

4. 대안

우리는 교회의 마이너스 성장의 원인을 밖에서 찾기 쉽다. 그러나 원인을 바르게 분석하여 전무출신 스스로와 교단 경영에서 찾아야 된다. 이외의 어떤 분야 어떤 교회 방안으로도 이 상황을 돌파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 1) 교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교회 마이너스 성장에 대하여 그 원인 규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 2) 그 원인을 교단의 핵심 정책에서부터 교무의 자질 까지 교단 내적으로 찾고 이를 우선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 3) 교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전담할 부서를 두어 연구하도록 한다.(전문 연구원)
- 4) 교무 훈련 기간을 대폭 늘리고 심도있게 진행하여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 5) 인사는 능력위주로 시행해야 한다

